

# 심사총평

심사위원 A	시를 사랑하는 낭송인으로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열어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. 오프라인 못지않은 실력들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어 참으로 반가웠습니다. 참고로 저는 질리지 않는 감동을 주는 낭송을 우선시 하면서 채점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
심사위원 B	최선을 다한 참가자들의 진지한 열의 반영 - MP3로 심사가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으나 무조건적인 미성 보다는 감성적 낭송을 우선적으로 감정몰입, 발음, 작품이해도의 변별력을 심사기준으로 하였다.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낭송참가자들의 진지한 열의에 한국낭송 문화 발전에 큰 기대를 재확인 하는데 손색이 없었다.
심사위원 C	남도답사 일번지로 익히 알려진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"땅끝순례 문학관"에서 주최 제2회 시낭송 대회에 심사를 맡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또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전국 각처에서 응모된 학생부 99편 일반부 132편 도합 총 231편의 MP3 녹음을 통한 음성으로 응모자와 만났으며, 땅끝 해남을 사랑하여 특히 이 고장 해남출신 시인들의 주옥같은 시가 낭송된 남녀노소의 모든 출품작에서 역시 해남의 풍광과 남도 특유의 기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시적 의미에 더하여 자신이 느낀 감동을 얼마나 또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점이 낭송의 최종 본령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땅끝 낭송대회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 대회가 년년세세 발전을 거듭하여 남도답사 일번지에 이어 낭송 일번지로 불리우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